

□ 動向分析 □

세계 정유산업의 구조변화와 최근 동향

지난 10여년간 世界精油業界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정유공장중 상당수가 폐쇄됐으며, 美國 및 서유럽의 정유공장들은 고도화 施設을 설치하였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던 정제마진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계속 감소하였으며, 지난 해에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되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크래킹 시설의 정제마진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정유공장의 가동률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여기서는 80년대 이후 世界精製業界의 변화추이와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世界精油業界는 이제 70년대 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Petroleum Economist 9월호에 따르면 1984년말 현재 자유세계의 정제 능력은 57.8백만b/d(2,888백만톤 1年)로 최고 수준을 보였던 1980년의 66.4백만b/d보다 약 1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정제능력 및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精製業界 현황은 1次 석유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과 비교할 때 1984년의 정제능력은 단지 7% 밖에 높지 않으며, 제품생산량 및 소비량은 각각 7% 및 6%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제능력이 감소됨에 따라 가동률은 크게 향상됐다. OET에 의하면 정유공장의 가동률이 1982~1984기간에 美國은 8.2% 포인트, 서유럽은 3.7%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984년 자유세계 전체의 가동률도 73.7%로 전년대비 3.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P.E誌는 추정하고 있다.

80년대 정유업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정제마진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로테르담 現物市場의 Brent 原油를 기준으로 할 때, 常壓蒸溜施設의 정제마진은 마이너스 상태가 거의 전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크래킹 시설의 경우도 80년대초의 배럴당 4~5달러에서 지난 해 말에는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래킹 시설의 정제마진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정제능력의 과잉 때문이다. 초과 정제능력으로 휘발유 등 제품의 가격은 크게 떨어진 반면 精製原料로 사용되는 重油의 가격은 급상승했다.

최근 美國 등 정유업계에서 일고 있는 두가지 사실을 지적한다면 하나는 업자들이 고도화施設에 대한 투자를 꺼려한다는 점이며, 다음으로 漸增하는 輕質製品의 수

自由世界 精製能力 현황

(單位: 천b/d)

	既存施設 ¹⁾		新 規 施 設 ²⁾		
	容 量	비중%	工場數	容 量	비중%
北 美	17,160	29.7	2	68	3.8
西 歐	15,820	27.4	2	150	8.3
아 시 아 ³⁾	10,700	18.5	5	256	14.2
中·南 美	7,940	13.7	6	392	21.7
中 東	3,640	6.3	5	602	33.3
아 프 리 카	2,540	4.4	4	338	18.7
合 計	57,760	100.0	24	1,806	100.0

註: 1) 1984년말 기준임.

2) 1990년까지 계획중인 신규건설 또는 既存施設의 확장임.

3) 호주 포함.

〈資料〉 Petroleum Economist, 85/9

입에 일부 정제업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前者的 이유로서 첫째, 정유능력이 아직도 과잉상태에 있다는 점 둘째는, 無鉛 揮發油의 생산에 따른 추가비용의 回收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은 휘발유의 鉛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함유량 기준인 0.5gram/liter에서 1986년부터는 0.1g/l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이는 당초 198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서 美政府의 鉛함유량 허용상한의 단계적인 감소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가공시설이나 옥탄價 上昇劑가 필요하게 되었다.

후자의 이유로서 中東·아프리카의 新規정유공장의 건설과 함께 지나친 石油製品수입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美國의 總輕質製品 수입은 1982년 33.1만b/d, 1983년 46.1만b/d, 그리고 1984년에는 63만b/d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美國內의 독립계 정제업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輸入쿼터시스템, 관세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서유럽 및 日本에서도 같은 처지로서 싱가포르市場의 시장점유율 감소와 더불어 아직은 미미하지만 상당량의 OPEC 輕質製品이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

(Petroleum Economist)